

농어촌공사, 호우 대비 수리시설 점검

윤 박슬옹 기자 | 승인 2024.07.25 00:02

저수지 10개소, 배수장 43개소
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피해예방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배수장을 점검 하고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 10개소, 배수장 43개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.

공사는 △중점관리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△관계 기관 비상연락망 재정비 △실시간 저수지 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제한수위 도달 전 적극적 사전방류 △배수장 43개소에 대한 관리인력 배치 △TM/TC를 통한 실시간 원격 가동 등 홍수해 피해가 없도록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또한 지역 내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내 배수장 5개소 신설 및 노후 배수장 2개소 현대화 등 재해관리 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.

서정훈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은 "앞으로도 장마철에 대비한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재해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

박슬옹 기자